'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이것이 진짜 사회풍자 코미디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대한민국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스토리로 공감과 웃음 모두 확보하며 사회 풍자 코미디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했다.

스토리에 대한민국 현실 고스란히 반영

지난 21일(화)에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극본 김반디 | 연출 박원국) 27-28회에서는 조진갑(김동욱)과 갑을기획 패밀리, 그리고 주미란(박세영)까지 완전체로 똘똘 뭉쳐 '갑질 끝판왕' 국회의원 양인태(전국환)를 응징하기 위한 최후의 대결이 시작됐다. 그 동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우리가 실제로 뉴스를 통해 접했었던 부와 권력을 앞세운 다양한 갑질 문제를 극의 적재적소에 녹여낸 리얼한 현실 반영으로 시청자들의 공감력을 무한 자극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악덕 사업주에 이어 재벌 갑질 그리고 이번엔 국회의원 갑질까지 겨냥해 안방극장에 짜릿한 대리만족을 선사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이번엔 문고리 5인방 에피소드를 통해 한 때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사회적 이슈를 다시금 꼬집었다. 이를 단순히 무겁게 그려낸 것이 아닌, '조장풍'만의 스타일로 웃음 폭탄과 함께 선보여 사회풍자 코미디 드라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

이날 방송은 60분 내내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롤러코스터급 전개가 펼쳐졌다. 먼저 조진갑은 국회의원 양인태가 실소유주로 있는 선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고, 회사 곳곳을 누비며 안전 수칙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검사했다. 진갑은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유기용제탱크의 기름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를 관리하는 안전관리팀장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진갑의 아버지(김홍파)는 아들을 곤란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그게 공무원이지"라며 평생의 업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갑 역시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당당하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안방극장에 가슴 뭉클함을 선사했다.

한편, 조진갑의 활약 덕에 양인태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도하도 만반의 공격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구질구질한 인생은 아버지 하나로 충분하다며 서늘한 독기를 품은 우도하는 선강의 실소유주가 양인태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으려는 진갑을 방해했고, 선강의 모든 비리 장부를 일명 '저수지'라 부르는 그곳으로 옮겨놓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갑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진갑 홀로가 아닌, 진갑의 일이라면 신뢰 100%로 발 벗고 나서는 갑을기획 패밀리,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나선 전처 미란까지 합세했기 때문. 여기에 한 치 앞을 미리 예상하는 진갑의 비상한 '촉'은 비리 장부가 옮겨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잠복에 들어갔다. 갑을기획 패밀리와 함께 구대길의 뒤를 밟아 비리 장부가 실린 차량 추적에 나선 것. 그러나 우도하 역시 이를 먼저 예상하고 똑같이 생긴 차량을 투입시키는 교란 작전을 펼치게 되면서 긴박감 넘치는 추격전이 계속 이어져 안방극장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스펙타클한 상황이 펼쳐져 시청자들의 몰입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우도하의 전략에 판세가 뒤엎어진 듯 했지만, 덕구는 이를 모두 예상한 듯 구대길의 차량에 미리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었고, 진갑과 덕구의 맹추격 끝에 구대길의 차량을 포위하는데 성공한다. 여기서 반전은 또 펼쳐졌다. 구대길의 꼬임에 넘어간 동료 근로감독관 황과장이 미리 그의 차에 추적기를 떼어버렸던 것.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한 진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장부는 사라져도 돈은 사라질 수 없다는 '촉'을 발휘해 자금 흐름을 추적에 나선 진갑에게 말숙(설인아)은 돈의 게이트가 선강의 경리라는 것과, 선강의 바지 사장 양학수와 내연관계라는 특급 정보를 전해주면서 또 한번의 전세 역전을 예감케 했다.

결국 진갑과 갑을기획 패밀리는 해외로 도피를 하려던 그들에게서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계좌를 일명 '문고리 오인방'이 관리한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갑을기획 패밀리는 찜질방에 모여있던 문고리 오인방을 찾아냈고, 진갑은 차명계좌 입출금 정보에 통장까지 입수해 국회의원 갑질 응징 성공에 청신호를 켰다. 특히 예상치 못한 '문고리 오인방'의 등장은 안방극장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고, 갑을기획 패밀리에게 한 방에 당하는 이들의 모습은 짜릿한 대리만족감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진갑과 도하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쫄깃쫄깃 두뇌싸움만으로도 60분을 시간 순삭했다. 여기에 단짠을 오가는 롤러코스터급 전개는 극의 긴장감과 몰입감을 더욱 배가시켰고, 깨알 같은 웃음 포인트와 리얼한 현실반영 스토리는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것.

특히 28회 엔딩에서는 배신했던 황과장이 진갑에게 선강의 비리장부부터 최서라의 도청장비, 이창규의 핸드폰, 그리고 동영의 사진이 박힌 신분증까지 양인태의 모든 비리 증거가 모여있는 컬렉션 창고의 위치가 상도빌딩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서 종영까지 단 1주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어떤 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시청자들의 기대와 궁금증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MBC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매주 월, 화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소미 · 청하 등 컴백…女솔로, 초여름 가요계 주연 될까

여름이 시작되는 가요계에 여자 솔로 가수들이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여자 솔로 가수들의 컴백 러쉬가 올해도 다시 찾아왔다. 여자 솔로 가수들이 올해 2분기 가요계의 다크호스를 넘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고, 오랜 공백을 지나왔거나,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전망은 충분히 밝다. 또 하나의 트렌드를 이끌 여자 솔로 가수들의 컴백 예고를 모아봤다.

22일에는 트렌디한 실력파 가수 두 사람이 함께 컴백한다. 효린은 이날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 'xhyolynx'의 오프닝 싱글 '니가 더 잘 알잖아'를 발표하며 드라마틱한 보컬과 확장된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같은 날 0시 케이티는 데뷔 EP '로그(LOG)'를 발매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 앨범은 케이티의 높은 참여도로 완성도를 더했다.

신예들의 컴백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신승훈의 뮤즈'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낸 로시는 오는 27일 '컬러 오브 로시(Color of Rothy)'를 발표하고 직접 작곡한 타이틀곡 '비(BEE)'로 싱어송라이터의 매력을 발산한다. 아이오아이(I.O.I)를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 걸그룹에서 활약한 소미는 6월 13일 더블랙레이블에서의 솔로 데뷔를 최근 확정 지었다.

같이 아이오아이로 활동했던 청하와 또 다른 그룹 코코소리 및 오디션 프로그램인 JTBC '믹스나인' 출신인 소리 역시 올 여름에 돌아온다. 올해 초 '벌써 12시'로 히트작을 추가한 청하는 각종 대학 축제 일정에 이어 6월 컴백을 준비 중이고, 소리 또한 이날 7월 초 프로듀서 폴디드 드래곤즈와 컬래버레이션한 퓨처 베이스 신곡 발매 소식을 알렸다.

또 하나의 기다려지는 컴백 가수는 긴 공백을 거친 김예림과 이하이다. 지난 2016년 미스틱을 떠난 김예림은 17일 자신의 SNS에 오는 24일 4년여 만의 컴백을 알리는 티저 영상을 올려 별다른 홍보 없이도 열띤 관심을 받고 있다. 이하이 또한 3년의 공백을 깨는 컴백 커밍순 티저를 공개하며 YG의 차기 주자로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런 솔로 컴백 뿐만 아니라 태연은 '월간 윤종신' 별책부록 '춘천가는 기차', 소유는 오반과의 듀엣곡 '비가 오잖아', 헤이즈는 기리보이의 '교통정리' 피처링을 각각 가창하는 등 여자 솔로 가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도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세 곡은 22일 오전 기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안착해 그 저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1월 청하, 3월 태연, 역주행 케이시 등 여자 솔로 가수들은 올해 가요계에서 내실 있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한번 여자 솔로 가수들의 활약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다양한 장르와 매력을 알차게 품은 이들이 '여자 솔로 전성시대'라는 흐름을 이끌 수 있을까. 이들을 향한 기대감은 초여름 가요계를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이유가 됐다.

방탄소년단, 美 NBC '더 보이스' 파이널 게스트 출연…'폭발적 반응'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인기 보컬 오디션 프로그램 '더 보이스' 시즌 파이널 게스트로 출연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버설 시티(Universal City)에서 진행된 '더 보이스(The Voice)' 결승전에서 축하 공연을 펼쳤다.

진행자 카슨 데일리는 방탄소년단이 케이팝 슈퍼그룹으로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지난 1년간 '빌보드 200'에서 세 번의 1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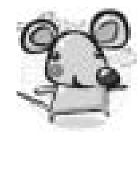
방탄소년단은 이날 새 앨범 MAP OF THE SOUL : PERSONA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feat. Halsey'의 공연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객석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수십 명의 댄서가 함께한 화려한 무대는 전 세계의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이날 결승전에는 방탄소년단 외에도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와 브랜든 유리(Brendon Urie), 조나스 브라더스(Jonas Brothers), 할시(Halsey), 칼리드(Khalid), 원리퍼블릭(OneRepublic), 후티 앤 더 블로우피쉬(Hootie & The Blowfish) 등이 축하 무대에 올랐다.

'더 보이스'는 미국 NBC에서 방송되는 대표적인 보컬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현재 16번째 시즌으로, 카슨 데일리(Carson Daly)가 진행을 맡고 있으며 켈리 클락슨(Kelly Clarkson), 존 레전드(John Legend), 마룬5(Maroon 5)의 멤버 애덤 리바인(Adam Levine), 블레이크 쉘톤(Blake Shelton)이 심사위원이자 코치로 출연 중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5일과 26일 브라질 상파울루 알리안츠 파르크에서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투어를 이어간다.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음력 4월 19일)



▶쥐띠 저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니 옳고 그름을 따질게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명한 합의와 판단이 필요한 때. 더불어 사는 사회에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 없다. 뱀, 범띠의 협력으로 전진하면 길하겠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소띠 답답함은 문이 없기 때문이다. 열려는 노력과 인내가 없다. 혼자 애쓰지 말고 ㄴ, ㄷ, ㄹ, ㅌ성씨의 협조를 구하면 삶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전기, 가스, 의료, 식품업 종사자에게 길이 열리고 있다. 순리를 따를 것. 급할수록 돌아가라.

▶호랑이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 주변사람으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겠다. 건강에 유의하고 음식 조심할 것. 사랑은 잘 치르면 축복의 열매를 맺고 잘못 치르면 불행의 씨를 만든다. 진정 속마음을 타진해 보는 것이 어떨지. 진실은 통하는 법.

▶토끼띠 늦었다고 여길 때가 가장 빠른 시기. 학문에 미련을 두지 말라. 재도전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움은 한층 더 자기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미혼자는 청혼을 받을 수 있는 운. 화이트로 단장해 볼 것.

▶용띠 능력만 믿고 교만해지지 마라. 주변에서 당신보다 나은 실력자가 항상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안하무인 격 성격이 돌출되니 감정 조율이 필요한 날.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좀 더 충실함이 좋겠다.

▶뱀띠 실속 있는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라. 뒤에서 수근거리지 말고 주장과 뜻을 펴 보일 때. 용기와 배짱이 필요하면 쥐, 토끼, 닭띠의 도움을 받아라. 삶의 활력소가 되겠다. 10, 11, 12월생 서쪽으로 가지 마라. 건강에 유의.

▶말띠 감언이설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 마라. 난관과 역경을 자초하는 꼴이다. ㄱ, ㅅ, ㅈ, ㅎ성씨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중첩되어 피로가 쌓이니 건강이 우려된다. 내일을 위한 재산은 건강이다. 서, 남 간 사람과 벽을 만들지 말라.

▶양띠 친지 간에 덕이 없어 베풀고도 돌아오는 건 원망 뿐. 사랑에는 진실한 정과 양보가 필요. 봉사정신으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함이 좋을 듯. 1, 5, 7, 9월생 어떠한 고통과 액운이 닥친다해도 재치있는 순발력으로 대응하라.

▶원숭이띠 펼쳐 놓은 일은 많으나 우유부단하고 결단성이 없어 퇴행을 자초한다. 길은 반성과 점검에 있다. 1, 3, 5, 6월생 오늘따라 파란색 정장이 행운을 불러온다. 뭇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겠다. 소, 개, 원숭이띠를 멀리하려고만 들지 말 것.

▶닭띠 재물을 얻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혼사를 매듭 지을 수. 얌전하고 겸손한 태도로 매사에 임할 것. 노력으로 걷는 성공의 길. ㅁ, ㅂ, ㅍ, ㅎ성씨 신병으로 고통이 따르겠다. 1, 2, 6월생 임이 동, 남쪽에 있으면 잊어버려라. 마음이 타향이다.

▶개띠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 모든 일을 정리해야 할 때. 사업가는 분에 넘치는 확장은 삼감이 좋겠다. 시험 준비자는 분발하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2, 4, 10월생 한 마음 한 몸으로 두 길을 걸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라. 애정관계에서는 내숭떨지 말 것.

▶돼지띠 훈계하는 이를 은인으로 알라. 자기반성은 미래의 빛이다. 경쟁자가 평가하니 진실을 보임이 좋다. 철재를 다루는 자는 마음이 넓고 화통하나 딱딱한 언동으로 인간관계에 오해를 빚을 운. 부드러운 양념이 필요. 10, 11, 12월생 파란색 삼가.